

아유보완! 스리랑카

이주민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회 통합의 동반자이다. 출신 배경이 되는 여러 문화에 대한 존중 없이 무조건 한국식으로 바꾸려는 정책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순혈주의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종교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태국, 중국, 대만,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의 한국 법당을 찾아 그들의 생활 속 종교문화를 엿봤다. 스리랑카는 현지에 주유하고 한국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 어왔다.



스리랑카에서는 학교갈 나이가 되면 일요일마다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담마스쿨에 들어간다. 너무 그늘 아래서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불교생지 스리파타를 오르고 있는 가족들

벽에 기대거나 다리를 뻗어 편한 자세로 법문 듣는다

■국경일 '포야데이'...매월 계를 지키는 날

스리랑카는 매월 음력 보름이면 거리가 쾨다. 관 공서는 물론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 술도 팔 지 않는 정말 무지막지한 날이다. 이 날은 국경일로 스리랑카 말로는 포야데이(Poya day, 布薩)라고 하 는데 우리나라의 '포살법회'를 보는 날의 개념이다.

사람들은 순백의 하얀 옷을 입고 사원 경내에 길 게 늘어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날은 일터 대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가까운 사원을 찾아 하루 종일 계를 지키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대개는 가까운 사원을 찾는다. 멀리서 오는 사람 들은 전날부터 경내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남 방불교 대부분이 그렇듯 사원 안에서는 맨발로 생활 을 해야 하는데 일부 신도들은 집에서부터 맨발로 사원까지 걸어온다. 집을 떠나면서부터 이미 세속을 떠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향과 꽃, 음식들로 공양을 올린다. 새벽 6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면 신도들은 본격적인 포살의식을 위해 자리를 잡고 앉는다. 포살을 설하는 스님이 법당 안 법상에 오르지만 신도들은 굳이 법당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스피커를 통해 경내 어디 서든 스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무그늘 아래 자리를 깔거나 의자에 앉 고 뒀이 불편한 사람들은 벽에 기대거나 다리를 뻗어 편한 자세로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우리나라의 풍나 물시루 같은 법당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이들은 너 념한 자리를 만들고 편안하고 열린 마음으로 불법을 훈습하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상호에서 나오 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도 불자들은 평소에 5계를 수지한 다. 다만 포야데이에는 △몸을 장식하거나 가무를 즐기지 말 것 △높고 좋은 자리에 앉지 말 것 △때 아닌 때에 먹지 말 것 등 8계를 지키고 생활한 다. 이는 붓다가사(Buddhaghosa, 佛音)의 <청정도 론(淸淨道論, Visuddhi-magga)>에 근거하는 것으 로 계정해 삼할 중 기본이 되는 계를 지키으로써 선 정과 지혜를 가꿀 수 있는 깨끗한 뒷발을 만든다.

■스리랑카의 불교는 생활

스리랑카에서 보리수는 특별한 나무이다. BC 3세 기 보드가야의 보리수 가지를 스리랑카로 모셔온 이래 사람들은 보리수를 부처님과 동일하게 여겼다.

어느 마을이든 중심에는 보리수가 있고 그 아래 부 처님을 모신다. 신도들은 사원에 오면 보리수를 돌며 물을 부어 공양하고 기도한다. 포야데이 오후에는 보 리수에 차, 과일, 꽃, 향, 초 등의 공양을 올리고 스님 이 읽어주는 계송과 시 등을 따라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포야데이 외에는 집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꽃과 향을 공양하고 삼귀의 등을 암 송한다. 경조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원을 찾는다. 아픈 환자 가 있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스님을 모셔 법 문을 청하기도 하는데 망자를 위한 법문은 여러 스님 들이 번갈아 가며 밤새 이어가기도 한다.

탁발과 공양...스님은 은행출입도 못한다

상좌부 불교국가에서는 아직도 부처님 당시와 마 찬가지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는 탁발을 남아있다. 도심에 있는 사원의 경우 사화, 경제적 변 화로 신도들이 직접 사찰을 방문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울장에 따라 사원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다. 대신 집에서 직접 공양을 준비해 오는데 몇 전부터 예 약을 해야 스님께 공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스리랑카 대부분의 가정의 형편은 아 니기 때문에 한 번의 공양을 위해서는 길게는 일 년 동안 아끼고 모아 가족 혹은 마을 단위로 사원을 찾 는다. 공양 전날 사원에 도착해 사원 한 편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스님에게 올릴 즉 공양부터 준비한다. 아침 공양 준비가 끝나 면 법사 스님을 모시고 공양의 절차와 의미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

아침 공양시간이 되면 일렬로 들어오는 스님들의 발을 맨손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드린다. 스님들이 착석하면 정갈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신도들이 직접 한 분 한 분 스님들에게 나눠 올린다. 스님들은 싫어 하는 음식이라고 거절하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이라 고 더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신도들의 음식 을 받아 공양에 둔다. 팔순의 노인부터 어린 아이 까지 신도들의 정성스런 공양을 직접 대면해서 받 는 스님들은 헛되게 수행할 수 없다. 신도들의 바람 대로 우주만물을 위해 정진하는 양식으로 삼는다.

공양이 완전히 끝나면 신도들은 스님들을 위해 준비한 발우나 가사 등을 보시한다. 스님들은 전통 적으로 금전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약이나 비누 등의 기초 생필품도 함께 드린다. 아직도 스리 랑카에는 돈을 만지지조차 않는 스님들이 있고 모 든 스님들은 은행 출입을 삼가고 있다.

부처님 족적을 찾아 노모를 업고 가는 순례객

스리랑카에서는 일상적인 신앙생활 이외에 가족 단위로 성지순례를 다니기도 한다. 스리랑카 최고의

역사서 마하왕사(Mahavamsa)에 보면 부처님이 스리 랑카에 세 번 다녀가셨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학자 들 사이에는 기원전 3세기 공식적으로 처음 불교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좌부 불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리랑카의 자부심은 이러한 전설을 역사적 사실로 신앙하게 한다. 세 번의 방문지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스리파타(Sri pada)이다. 부처님 발이 란 뜻의 이 산은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2243m)으로 1년 내내 수백만 순례객이 발길을 잇는 다. 산 정상 바위에 발바닥 모양의 홈이 있는데 이것 이 부처님이 남긴 족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산을 오르거나 무거운 공양물을 머리에 얹고 혹은 간난이이를 품에 안고 오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나이 많은 노모를 부축하거나 업고 산을 오르는 순례객들도 종종 눈에 띄는데 이들의 순수하고 고결한 믿음은 때 묻은 여행자를 되돌아보게 한다.

가족 단위의 순례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산 을 오르고 오르다 힘들면 쉬면서 간식을 먹거나 식 사를 하기도 한다. 중간 중간 대피소처럼 만들어진 쉼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담요를 깔고 쉬어갈 자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모두 성지에 오르는 형제라고 생각하는 듯싶다.

순례는 기본적으로 편도 10시간 거리지만 누구 하나 조금만 기색이 없다. 순례 자체가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이고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는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발자국은 하얀 종이 로 덮여 있는데 그 위 그려진 발자국의 문양으로 가늠할 뿐이다. 하지만 어느 순례객도 실망하는 기 색이 없다. 대부분의 순례객이 수십 차례 이곳을 다 시 찾는 것이 그 반증이다. 발자국을 본다고 해도 부

처님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담마스쿨

스리랑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를 접한 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일요일마다 불교 교 리를 공부하는 담마스쿨(Dhamma School)에 들어 간다. 일요일 아침이면 아이들은 하얀 옷을 정갈히 차려입고 집안에 있는 꽃을 정성껏 바구니에 담아 삼삼오오 사원으로 향한다. 부처님 전에 줄을 서서 꽃 공양을 올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때 묻 지 않은 순수한 공양이기에 큰 감동을 전해준다.

아이들은 사원의 너른 마당에서 삼귀의와 오계를 독송하고 수준에 따라 10학년으로 나뉘어 공부를 한다. 사원마다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많은 학생들 이 있기 때문에 수업은 교실 밖 나무그늘 아래에서 도 함께 이뤄진다. 각 반에서는 경전과 팔리어, 아비 달마 등을 공부하게 되는데 교재는 나라에서 주도 해 만들며, 저명한 스님과 학자들이 저술한 것을 기 본으로 한다. 교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의 도덕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리랑카 사회윤리 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스리랑카 사 람들이 가정과 사회를 소중히 여기고 삶에 대한 긍 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 인 듯하다.

장학수는...

동국대 선학과 졸업. 불교 TV, KBS '지구촌 뉴스' PD. 조계종 홍보팀 근무. 현재는 스리랑카를 주유하고 있다.



2555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재)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산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02)744-0779

www.angukzen.org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제 8회 마곡사 신록축제

- 신록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 -

● 일 시 : 불기 2555 (2011)년 5월 14일(토) ~ 5월 15일(일)
● 장 소 : 마곡사 경내 및 마곡사 솔바람길 / 마곡사 인근유채꽃밭
● 문 의 : 0411841-6221~3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
주 회 / 주 관 마곡사 신록축제 추진위원회